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5.8.27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395.80원 (+11.10원)

KOSPI

3,179.36 (-30.50, -0.95%)

KOSDAQ

801.66 (+3.64, +0.46%)

국고채 10년 금리

2.860(+0.008%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실전 퀀트(Quant MP)	돌고 돌아, 퀄리티 장세 [이경수]
신흥국 전략	인도 이슈 업데이트 : RBI, 물가안정목표 유지 시사 [김근아]

기업분석

BNK금융	3분기에도 대규모 충당금 환입 예상. 과징금 우려도 없음 [최정욱]
SK텔레콤	9월 전략 – 악재 소멸되면서 주가 반등 예상 [김홍식]
KT	9월 전략 – 단기 호재 고갈, 장기 매수로 전환 [김홍식]
LG유플러스	9월 전략 – 주주 환원 증가, 실적 개선 주가에 기반영 [김홍식]
삼성E&A	사야하는 이유(3): 커지는 산업, 대비하는 EPC사 [김승준]
에스켐	OLED 소재 리사이클링이 이끄는 고성장 [최재호]

산업분석

조선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 조선업 재건 [유재선]
운송	중국발 국제선 숏티지 발생 [안도현]

Monthly

통신	이젠 연말 호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장기 매수해야 [김홍식]

글로벌리서치

캡콤	게임스컴의 주인공 [이준호]

단기투자유망종목

현대차, 크래프톤, CJ제일제당, 현대백화점, 삼영, RFHIC, 테스, 셀비온, 한중엔시에스, 티엘비

하나증권

2025년 8월 27일 | Global Asset Research

실전 퀀트(Quant MP)

돌고 돌아, 퀄리티 장세

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지수 방향성과 배당세 정책 기대감의 관계

코스피 3Q25F OP는 76.8조원 수준(QoQ +12%, YoY +9%)으로 지난 2분기의 역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분기 OP 전망치는 1개월전대비 -1.3% 정도로 빠른 속도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한편, 센티먼트 측면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달러 약세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환경이다. 아무래도 양국간의 펀더멘털 괴리 영향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외인 수급 측면으로도 부담 요인이다. 게다가 이어지는 미국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다면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 추가가 될 여지도 있다. 이쯤 되면 더욱 절실해지는 것이 한국의 정책적 '자극'이다. 결국 '배당소득세 최대세율 하향조정'이 유일한 시장 반등 요인일 것이다. 현재 올해 코스피 배당성향 예상치는 22.6%로 7월 이후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상향 움직임에 적극성을 보이는 기업은 선뜻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배당 ETF에 꾸준히 설정액이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기대는 점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정부의 배당세에 대한 경중 파악 정도와 실제 배당 증액을 결정하는 기업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오히려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배당소득세율 검토가 예상되는 이유라고 보고 있다. 선진국(성숙기 진입)일수록 기업의 '이익'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보다 'PER(센티먼트)'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실적 불안정으로 인한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시클리컬 산업의 특징을 갖는 국내 기업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오히려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센티먼트(정책 등)를 만들어 주는 지혜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결국, 당분간 코스피 지수는 펀더멘털과 센티먼트의 동반 악재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세 하향 등의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최소한 횡보 흐름을 지켜낼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수출주 VS 내수주 판단과 추가 고려할 팩터는?

경험적으로 한국의 내수주대비 수출주의 POR(시총/OP) 스프레드는 원/달러 환율 추이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이론적인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도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주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관세 직격탄에도 내수주대비 수출주의 이익 추정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 등 수출 기업들의 실적 상향이 실적의 양극화를 야기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을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의 부진한 경기 및 현재의 금리 레벨을 고려했을 때 점차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달러인덱스의 하락에도 엔화와는 다르게 원/달러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여전히 내수주보다는 수출주가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싶다. 추가적으로 9~10월 계절성인 고배당 및 저평가, 실적 상향, 개인 순매수 상위 등의 성과가 높다. 반면, 고베타 및 거래대금 상위 등의 성과는 가장 낮아 과도한 내러티브가 반영되는 장세보다는 퀄리티 위주의 종목군이 높은 성과를 보였다는 점을 반영했다(HDC현대산업개발, 하나금융지주, LG씨엔에스, CJ, 카카오페이, GS리테일, GS건설, 클래시스 등). 당사 모델포트폴리오는 올해 +44.5%를 기록하여 동기간 +34.4%의 코스피 지수를 큰 폭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다.

2025년 8월 27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인도

인도 이슈 업데이트 : RBI, 물가안정목표 유지 시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인도 중앙은행(RBI), 현행 물가안정목표 적절성 재차 강조

인도 중앙은행(RBI)은 최근 정책 프레임워크 관련 의견서를 통해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적절성을 재차 강조했다. 인도는 2016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헤드라인 소비자물가(CPI) 4%(±2%)를 정책 목표로 삼아왔으며, 5년 단위로 재검토하고 있다. 금번 의견서는 2026년 3월 연장 여부를 앞두고 내놓은 중간 점검 성격의 문서로, 최종 결정 이전에 RBI의 정책 일관성과 제도 신뢰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26년 3월 재검토 앞두고 논의되는 주요 쟁점 둘

재검토를 앞두고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물가 지표를 헤드라인 CPI로 유지할 것인지, 코어 CPI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다. 기존의 입장은 식품과 에너지가 전체 CPI 바스켓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헤드라인 CPI가 가계의 체감 물가를 잘 반영하며, 이를 제외할 시 가계가 직면한 물가 상승 압력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입장은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은 공급 요인이 크고, 통화정책으로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행 4%(±2%) 목표의 유지 여부다. 해당 목표는 2016년에 설정된 것으로, 그간 인도의 경제 구조와 대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적정 수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상기 두 쟁점에 대해 RBI는 헤드라인 CPI와 4%(±2%) 목표 모두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은 크지만 국민 체감 물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이며, 2016년 도입 이후 대외 불확실성 국면에서도 인플레이션 억제에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로운 정책 이벤트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성 제공할 전망

이번 발표는 단순히 현상 유지를 시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을 재확인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판단이다. 특히, 신흥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물가 목표를 쉽게 변경할 경우 정책 신뢰가 약화되고, 환율 불안과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인도가 현행 체계를 고수한 것은 이러한 리스크를 차단하며 프레임워크의 안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시장에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새로운 정책 이벤트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율 안정과 자금 유입 기반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2026년 3월에 예정된 최종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RBI는 인도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수요 둔화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정책 기조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면서 향후 데이터와 대외 환경을 보며 조정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남겼다. 따라서 양호한 펀더멘털에 기반한 장기 관점은 유효하지만, 대외 변수에 따른 단기 변동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2025년 8월 27일 | 기업분석_Issue Comment

BNK금융 (138930)

3분기에도 대규모 충당금 환입 예상. 과징금 우려도 없음

BUY (유지)

목표주가(12M)	19,000원
현재주가(8.26)	14,34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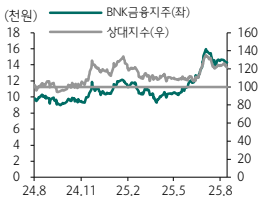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3,179.36
52주 최고/최저(원)	15,950/8,980
시가총액(십억원)	4,565.6
시가총액비중(%)	0.17
발행주식수(천주)	314,425.2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246.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7.0
외국인지분율(%)	39.57
주요주주 지분율(%)	
롯데쇼핑 외 6 인	10.54
국민연금공단	8.57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876	1,028
순이익(십억원)	821	856
EPS(원)	2,528	2,653
BPS(원)	34,623	36,337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총영업이익	3,230	3,334	3,365	3,515
세전이익	863	992	1,118	1,170
지배순이익	630	729	835	876
EPS	1,948	2,278	2,676	2,809
(증감율)	-21.6	16.9	17.5	5.0
수정BPS	31,589	33,446	35,177	37,987
DPS	510	650	700	760
PER	3.7	4.5	5.4	5.1
PBR	0.23	0.31	0.41	0.38
ROE	6.3	7.0	7.7	7.7
ROA	0.4	0.5	0.5	0.6
배당수익률	7.1	6.3	4.9	5.3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삼정기업 충당금 추가 환입으로 3분기에도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순익 전망

BNK금융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9,000원을 유지한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삼정기업 계열사 정상북한산리조트가 북한산 소재 프리미엄 리조트인 파라스파라 서울을 한화호텔앤리조트에 약 4,200억원 정도에 매각한 것으로 보도했다. 따라서 BNK금융은 삼정기업 관련 상각채권 중 약 400억원 이상을 3분기 중 추가 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BNK금융은 삼정기업과 관련해 2024년말 1,061억원, 2025년 1분기에는 303억원의 추가 충당금을 반영한 바 있는데 2분기 200억원 환입에 이어 3분기에도 400억원 이상이 환입되는 셈이다. 금번 삼정기업 충당금 환입으로 BNK금융의 3분기 대손비용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가능성이 높고, 순익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공산이 커졌다. 3분기 추정 순이익은 약 2,580억원으로 컨센서스인 2,290억원을 크게 웃돌면서 2분기의 어닝서프라이즈에 이어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자사주 매입 시작으로 수급 여건 점차 개선 예상. 각종 과징금 부담 우려도 없는 상황

하반기 중 예정된 약 600억원의 소각용 자사주 매입이 금주초인 25일부터 시작되었다. 자사주 매입이 이미 진행 중인 타행들과는 달리 다소 늦게 시작됐는데 따라서 수급 여건은 이전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일일 5만주씩 매수 중이며 전일 종가 기준 약 4.2백만주를 매수해야 하고, 취득종료일인 12월 5일까지 약 70영업일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일 매수 규모는 좀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동사는 최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권 3대 과징금(은행 LTV 담합 의혹 과징금,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과징금, 홍콩 ELS 과징금)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은행지주사로 과징금 부담 우려에서도 완전히 자유롭다. 이는 CET 1 비율의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인일 뿐 아니라 D-SIB 추가자본 1%를 부여받지 않는 은행지주사 중 CET 1 비율 또한 12.56%로 가장 높은 은행이라는 점에서도 밸류업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고배당기업 적용에 무리 없고 배당매력도 은행 중 우위. PBR 상승 추세 지속 예상

BNK금융의 올해 중간배당을 포함한 예상 총 DPS는 700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하면 되므로(2023~2025F 평균 DPS는 620원) 배당 확대를 통해 고배당 상장법인에 해당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현 주가 기준 기대배당수익률은 약 4.9%로 자사주를 포함한 총주주환원수익률도 7.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배당매력도 은행 중 우위에 있다. 올해 예상 총주주환원율은 약 39.0%로 CET 1 비율 추세를 감안시 2026년 44.5%, 2027년에는 50%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향후 주주환원율 상승에 따라 0.41배에 불과한 현 PBR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5년 8월 27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SK텔레콤 (017670)

9월 전략 – 악재 소멸되면서 주가 반등 예상

BUY (유지)

목표주가(12M)	70,000원
현재주가(8.26)	55,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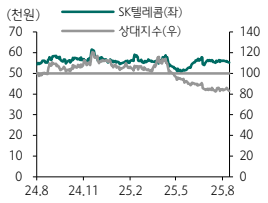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3,179.36
52주 최고/최저(원)	61,500/50,700
시가총액(십억원)	11,834.9
시가총액비중(%)	0.45
발행주식수(천주)	214,790.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99.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44.1
외국인지분율(%)	37.98
주요주주 지분율(%)	
SK 외 8 인	30.59
국민연금공단	7.45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7,130.5	17,777.8
영업이익(십억원)	1,226.2	1,840.9
순이익(십억원)	601.8	1,202.4
EPS(원)	2,805	5,463
BPS(원)	53,505	55,164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7,608.5	17,940.6	17,255.1	18,138.2
영업이익	1,753.2	1,823.4	1,456.8	1,882.7
세전이익	1,488.2	1,761.8	1,194.4	1,599.7
순이익	1,093.6	1,250.2	777.6	1,181.7
EPS	4,997	5,810	3,620	5,502
증감율	19.86	16.27	(37.69)	51.99
PER	10.03	9.50	15.23	10.01
PBR	0.94	1.01	0.99	0.96
EV/EBITDA	3.87	3.73	3.88	3.21
ROE	9.63	10.83	6.61	9.82
BPS	53,424	54,898	55,452	57,445
DPS	3,540	3,540	3,540	3,54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매수/12개월 목표가 7만원 유지, 9월 Top Pick 제시, 비중확대 기회라 판단

SKT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가 7만원을 유지한다. 더불어 9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한다. 특히 단기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판단인데 1) 실제 위약금 면제 연장, 수천억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낮아 9월 악재 소멸로 인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2) 배당 분리 과세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지만 기대 밖으로 국회 통과 시 관련 수혜주로 재부상할 수 있으며, 3) 올해 배당 감소 우려가 지속되는 양상인데 3분기 DPS도 830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4) 주주환원수익률로 보면 과도한 저평가 상황이며, 5) 3분기 실적 부진 가능성을 이미 대다수 투자가들이 인지하고 있고, 6) 2026년도엔 3사 중 가장 높은 이익성장을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위약금 면제 연장 및 천문학적인 과징금 문제로 시끄러운 현 시점이 어찌 보면 SKT를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이다.

위약금 면제 연장/수천억대 과징금/배당금 감소 가능성 현실적으로 낮다

최근 들어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하지만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통신분쟁조정위에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행정 명령이 아닌 분쟁 조정이라 반드시 수락할 의무가 없으며, 이론적으론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나 SKT가 이미 5천억원 이상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2026년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이슈가 거세지는 양상이라 대략 수백억원 수준에서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골 메뉴인 배당 감소 역시 가능성이 높지 않다. 배당금 지급이 일회성비용 제거 연결 순이익 기준이라 이번 해킹 사건으로 인한 배당 감소 명분이 약하며 최근 주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기 때문이다. 10월 발표될 3분기 DPS도 830원으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다.

배당 분리 과세된다면 호재, 2026년 실적 전망은 3사 중 가장 밝다

배당 분리 과세가 법제화된다면 SKT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가들의 기대감이 많이 내려간 상황인데 반해 SKT 세후 배당수익률은 최소 4%, 최대 5% 이상으로 시중 금리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2026년엔 역으로 통신 3사 중 이익 성장폭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올해 일회성비용이 5천억원 이상 반영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2026년도엔 연결 영업이익 기준 1.8~2.0조원 수준의 실적 달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2025년 연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조원대 초반까지 낮아진 상황이고 2026년 이익 컨센서스 상향 조정 작업이 연말 이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장기 투자도 고려할 만하다는 판단이다.

2025년 8월 27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KT (030200)

9월 전략 – 단기 호재 고갈, 장기 매수로 전환

BUY (유지)

목표주가(12M)	70,000원
현재주가(8.26)	55,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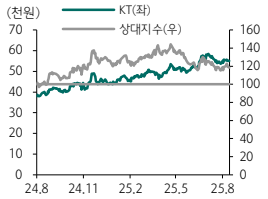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3,179.36
52주 최고/최저(원)	58,400/38,600
시가총액(십억원)	13,886.4
시가총액비중(%)	0.53
발행주식수(천주)	252,021.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27.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3.4
외국인지분율(%)	49.00
주요주주 지분율(%)	
현대자동차 외 1 인	8.07
국민연금공단	7.67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27,941.5	27,725.2
영업이익(십억원)	2,653.7	2,248.4
순이익(십억원)	1,956.2	1,645.6
EPS(원)	7,247	6,046
BPS(원)	71,901	74,740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6,376.3	26,431.2	28,044.9	27,583.0
영업이익	1,649.8	809.5	2,654.8	2,252.2
세전이익	1,324.1	584.7	2,633.3	2,271.0
순이익	1,009.9	470.3	1,897.8	1,631.3
EPS	3,887	1,850	7,530	6,473
증감율	(19.61)	(52.41)	307.03	(14.04)
PER	8.85	23.70	7.32	8.51
PBR	0.52	0.67	0.78	0.74
EV/EBITDA	3.41	4.31	3.57	3.48
ROE	6.05	2.85	11.26	9.07
BPS	66,498	65,177	71,085	74,975
DPS	1,960	2,000	2,400	2,8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매수/TP 7만원/통신서비스 12개월 Top Pick 유지, 장기론 좋지만 단기 횡보 예상

KT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7만원, 통신 서비스 업종 12개월 Top Pick을 유지한다. 2025년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도 전년동기비 안정적인 이익 성장 흐름을 유지할 전망이고, 2026년에도 DPS 및 주주환원금액 증가로 인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9월만 보면 KT 주가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파트 분양 수익 계상으로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단기 고점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2026년에나 분기 DPS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연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미 많이 높아진 상태라 실적이 주가를 올리기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2년간 KT 주가 상승률이 이미 2배에 육박해 주주환원금액 상승률을 감안하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단기 투자보다는 2026년까지 내다본 장기 매수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추천한다.

2분기 실적이 고점, 3Q DPS 600원 유지될 것이라 연말 되어야 주가 움직일 전망

7월 반등을 시도하던 KT 주가는 8월 이후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투자가들이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정작 2분기 실적 발표가 재료 노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2분기 대규모 아파트 분양 수익 계상으로 3분기 KT 연결 영업이익이 QoQ로는 감소일 수 밖에 없다는 점 역시 차익 실현 욕구를 증대 시켰다고 볼 수 있겠다. 결국 KT 주가는 연말에나 다시 탄력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공산이 커 보인다. 본사 실적 기준으로 보면 2Q와 마찬가지로 3Q에도 DPS 600원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2025년 4Q 또는 2026년 1Q에나 DPS가 상향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2025년 연간 본사 실적을 마감하고 2026년 1월 DPS를 올리거나 2026년 실적을 전망하면서 4월 DPS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올해 안에는 배당 이슈로 인한 주가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당분간 5~6만원 박스권 등락 예상, 11월 이후 본격 주가 상승 모색할 듯

그렇다고 보면 당분간 KT 주가는 50,000~60,000원 수준에서 박스권 등락을 지속하다가 연말부터 다시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DPS가 2,400원/자사주 2,500억원 포함 총 주주환원 금액이 8,500억원일 것임을 감안하고 기대배당수익률이 4.0~4.8%, 주주환원수익률이 5.7~6.8% 수준에서 형성될 것임을 예상할 시 그렇다. 시중금리가 급락하거나 5G 요금제 개편 기대감이 생겨나야 비로소 KT 기대배당수익률이 한 단계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될 텐데 아직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연말 이후 2026년으로 투자가들의 시각이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KT 주가 상승이 나타날 공산이 커 보인다.

2025년 8월 27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LG유플러스 (032640)

9월 전략 – 주주 환원 증가, 실적 개선 주가에 기반영

BUY (유지)

목표주가(12M)	16,000원
현재주가(8.26)	15,22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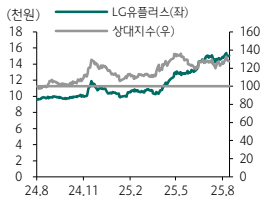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3,179.36
52주 최고/최저(원)	15,400/9,680
시가총액(십억원)	6,542.0
시가총액비중(%)	0.25
발행주식수(천주)	429,828.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170.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6.5
외국인지분율(%)	39.26
주요주주 지분율(%)	
LG 외 3 인	38.26
국민연금공단	8.55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5,363.8	15,583.7
영업이익(십억원)	1,043.4	1,144.6
순이익(십억원)	680.2	763.7
EPS(원)	1,592	1,796
BPS(원)	20,743	21,788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4,372.6	14,625.2	15,260.0	15,571.9
영업이익	998.0	863.1	963.7	1,086.9
세전이익	770.9	450.6	763.3	880.1
순이익	622.8	374.5	615.3	697.0
EPS	1,426	858	1,418	1,622
증감율	(6.12)	(39.83)	65.27	14.39
PER	7.17	12.04	10.73	9.39
PBR	0.52	0.52	0.72	0.70
EV/EBITDA	3.21	3.09	3.03	2.31
ROE	7.49	4.40	7.08	7.71
BPS	19,633	19,825	21,008	21,748
DPS	650	650	650	65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매수 의견/TP 16,000원 유지, 현 가격대 추격 매수는 다소 부담, 저점 매수해야

LGU+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16,000원을 유지한다. 2025년 높은 이익 성장과 함께 주주환원 증대가 예상되며 PER/PBR로 보면 여전히 주가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격 매수를 자제할 것을 추천한다. 2025년 실적 호전과 기존 자사주 소각/신규 자사주 추가 매입이라는 2가지 재료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올해 주주이익환원 증가율이 30%인데 반해 올해 상반기 LGU+ 주가 상승율이 50%에 달한다는 점에서 보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나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물론 2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외국인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미 LGU+의 이익 및 주주환원 수준이 너무 높아져 있다. 이미 자사주 소각 규모가 1,000억원, 배당 성향이 50%에 달하기 때문이다. 연말 5G Advanced 도입 이슈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당분간 13,000~16,000원 박스권 주가 등락을 예상한다.

2분기 실적 피크 아웃 가능성, 추가적인 주주 환원 증가엔 시간 걸릴 것

2025년 2분기 LGU+ 연결 영업이익은 3천억원을 넘어섰다.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하지만 주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았는데 현 시점에서는 향후 3분기 실적과 주주환원규모/배당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명퇴 규모가 적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면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2천억원대 초반에 불과할 것이다. 2분기 피크 아웃 우려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또 이미 자사주 소각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하고 배당 성향이 높아진 상황이라 총 주주이익환원 규모로 보면 2026년에는 올해와 달리 높은 주주환원금액 증가를 기록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2026년 DPS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총 주주이익환원 규모는 대략 3,6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될 공산이 커 밸류업 이슈가 LGU+ 주가 상승을 견인하기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2026년에도 이익 성장 전망, 주가 상승은 연말부터 가능할 전망

물론 2026년에도 LGU+ 실적 전망은 밝다. 올해 명퇴금 지급으로 연결 영업이익 1조원 달성에 실패할 전망이지만 2026년에는 1조원을 훌쩍 넘는 연결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된다. 이동전화매출액 정체가 예상되지만 B2B 매출액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케팅비용, 인건비, 감가상각비 정체 양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LGU+ 주가 상승은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 최소한 3분기 실적은 발표되어야 투자가들의 시각이 2026년으로 넘어가고 DPS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2025년 08월 27일 | 기업분석_Update

삼성E&A (028050)

사야하는 이유(3): 커지는 산업, 대비하는 EPC사

BUY (유지)

목표주가(12M)	39,000원
현재주가(8.26)	28,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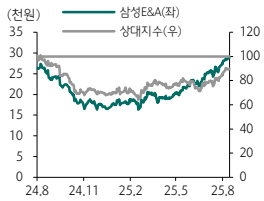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3,179.36
52주 최고/최저(원)	28,900/16,310
시가총액(십억원)	5,644.8
시가총액비중(%)	0.22
발행주식수(천주)	196,00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955.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3.5
외국인지분율(%)	45.77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SDI 외 7 인	20.52
국민연금공단	7.30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9,125.2	10,475.7
영업이익(십억원)	711.5	841.7
순이익(십억원)	584.6	667.0
EPS(원)	3,074	3,530
BPS(원)	24,050	26,913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0,624.9	9,966.6	8,669.3	9,866.8
영업이익	993.1	971.6	635.9	712.1
세전이익	932.6	903.8	745.7	792.1
순이익	753.8	756.9	541.2	586.2
EPS	3,846	3,862	2,761	2,991
증감율	13.38	0.42	(28.51)	8.33
PER	7.54	4.29	10.47	9.66
PBR	1.64	0.77	1.21	1.10
EV/EBITDA	3.90	(0.04)	2.45	1.51
ROE	24.45	19.65	12.14	11.94
BPS	17,721	21,591	23,882	26,213
DPS	0	660	660	660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선임연구원 하민호 minhoha@hanafn.com

글로벌EPC사: 순항하는 유럽, 재정비 중인 일본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E&A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유럽EPC사(테크닙에너지, 사이펨, TR, 사이펨)와 일본EPC사(JGC, 치요다)사가 있다. 국내 건설사(GS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는 사업 및 인력 축소 등을 통해 과거만큼 해외EPC를 하지 않고 있어, 삼성E&A의 경쟁사가 아니다. 유럽EPC사들은 2020년~2022년 부진한 실적을 딛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실적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EPC사들은 2024년에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재정비 중이다. 유럽EPC사들은 수주잔고를 유지 혹은 꾸준히 증가 중인 반면, 일본EPC사들의 수주잔고는 감소 중이다. 유럽EPC사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있는 반면, 일본EPC사들은 다소 보수적인 의견이다. 이에 따라 유럽EPC사들은 인력 충원을 통해 캐파를 늘리고 있는 반면, 일본EPC사들은 작은 규모의 수주를 추구하는 전략을 취했다.

유럽EPC사의 시장 전망과 각 회사의 전략 방향: 커지는 시장, 캐파 확장

유럽EPC사들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 연간 파이프라인을 500억유로 이상 규모로 전망한다. 가스, LNG와 그에 파생되는 발주(비료/블루암모니아, CCS), SAF 및 바이오에너지 쪽에서의 수주를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관련하여 저탄소암모니아(미국), CCS(영국), 그린수소(남부유럽), 해상CCS(영국) 등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수주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듯 커지는 시장에 맞춰 각 회사들은 최근 2년 간 20%씩 인력을 늘렸다(테크닙에너지, 테크니몽, TR). 여기에 얼라이언스(TR-중국 Sinopec)나 합병(Saipem-Subsea7)을 통해 캐파를 추가로 확장했다. 프랑스의 테크닙에너지는 전통적인 LNG플랜트 강호답게 LNG로 역량을 집중(LNG 모듈화 등)하는 한편, CCS, 블루수소 등 신재생 관련 캐파를 늘리고 있다. 이탈리아 Saipem은 강점이 있는 해상EPC로 역량을 집중하며, 최근 결정한 Subsea7 합병도 그러한 방향이다. 이탈리아 Maire Tecnimont은 라이선스 기술 수집을 통한 확장을 고려하여, M&A 등의 투자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스페인 Tecnicas Reunidas(TR)은 캐파 확장(인력 증원, Sinopec 얼라이언스)을 통해 규모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E&A는 유럽EPC와 같은 방향으로 순항 중

삼성E&A는 유럽EPC와 같은 방향을 전망하고, 캐파를 확장하고 있다. 삼성E&A의 파이프라인에는 대부분 가스처리, NGL, 블루암모니아, 블루메탄올, SAF 등 유럽EPC사가 전망하는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커져가는 시장에 맞춰 삼성E&A도 매년 인력의 5~10%를 인도 등을 통해 늘리고 있다. 커져가는 시장에 맞는 전략과 비전, 이에 따른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유럽EPC사 대비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 삼성E&A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9,000원, 건설 업종 TOP PICK을 유지하며 적극 매수를 추천한다.

2025년 08월 27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에스켐 (475660)

OLED 소재 리사이클링이 이끄는 고성장

Not Rated

현재주가(8.26) **5,81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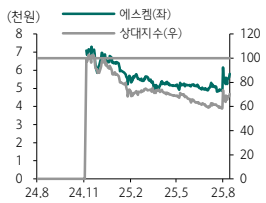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801.66
52주 최고/최저(원)	7,300/4,815
시가총액(억원)	460.7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7,929.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65.9
60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9.4
외국인지분율(%)	2.55
주요주주 지분율(%)	
염호영 외 1 인	29.03
키움시리우스사모투자 합자회사	14.20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억원)	255	508
영업이익(억원)	14	95
순이익(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263	179	244	331
영업이익	1	(38)	19	22
세전이익	5	(36)	(9)	10
순이익	5	(36)	(9)	10
EPS	107	(688)	(154)	169
증감율	10.3	적전	적지	흑전
PER	0.0	0.0	0.0	38.1
PBR	0.0	0.0	0.0	1.3
EV/EBITDA	0.0	0.0	0.0	0.0
ROE	37.7	130.0	23.8	2.7
BPS	272	(506)	(635)	4,823
DPS	307	0	0	0

Analyst 최재호 chlwogh2002@hanafn.com
RA 손호성 hss93@hanafn.com

OLED 소재 합성 및 정제 전문 기업

에스켐은 2014년 설립되었으며 화학 제품의 합성, 생산 및 판매를 진행하는 유기소재 전문 기업이다. 사업부는 크게 OLED 소재, 헬스케어 소재로 나뉜다. 우선 1) OLED 소재 부문을 살펴보면 OLED의 구조는 양극과 음극 사이 약 5~7층의 서로 다른 layer를 형성하고 있는데, 동사는 공통층, 발광층, 발광 보조층 등 전체 유기층에 OLED 핵심 유기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2) 헬스케어 소재 부문은 체외진단 시약, 신약개발용 중간체, 동물용 영양제 등을 제조 및 판매 중이다. 1H25 기준 매출액 비중은 OLED 부문 92.4%, 헬스케어 부문 5.6%, 기타 2.0%로 동사의 OLED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OLED 패널은 스마트폰, TV를 비롯해 태블릿 및 노트북, 전장 등으로 채택되면서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OLED 패널 시장 규모는 2025년 584.4억달러 → 2030년 1,085.8억달러로 CAGR 13.2% 성장이 전망된다. OLED 패널 적용 제품의 다양화에 따라 OLED 핵심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동사의 지속적인 성장 및 수혜가 예상된다.

OLED 소재 리사이클링 수요 확대 수혜 전망

에스켐의 향후 핵심 성장 동력은 OLED 소재 순환 정제 품목(리사이클) 확대에 따른 성장이 될 전망이다. OLED 소재 증착 과정은 유기재료 기화 → FMM(Fine Metal Mask) 구멍 통과 → OLED 기판 상 RGB 위치에 맞게 증착을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분만 증착되고, 약 80%의 OLED 소자가 증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동사의 최종 고객사 글로벌 디스플레이社는 증착되지 않은 OLED 유기소재를 → 동사에게 공급 → 합성 및 정제 → 다시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OLED 리사이클 소재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OLED 리사이클 소재는 기존 소재 원가의 약 10% 수준으로 고객사는 패널의 수율 개선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가 절감 니즈 증가에 따라 OLED 소재의 리사이클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사의 OLED RC(리사이클링) 매출액은 2022년 9억원 → 2024년 75억원으로 가파른 성장 추세에 있다. 동사가 공급 중인 OLED 소재의 품목이 매년 확대되고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6월 약 40억원을 투자해 OLED 소재 리사이클링 전용 라인 CAPA를 확대 중이다. 올해 OLED RC 매출액은 102억원(+36.0%, YoY)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6년은 약 250억원까지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OLED 리사이클 소재는 원재료 매입에 대한 원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매출 비중 확대에 따라 수익성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가파른 실적 성장 전망,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충분

에스켐의 올해 실적은 반기를 기점으로 상저하고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1H25는 최종 고객사인 글로벌 디스플레이社로의 공급 확대 과정에서 동사의 공급 지위가 격상함에 따라, 디스플레이 소재 고객사향 OLED 소재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 다만 올해 7월부터 신규 디스플레이 소재 고객사향 공급이 시작됐으며, 9월 신규 고객사향 공급이 예정됨에 따라 실적 감소분을 빠르게 Make-up해 나갈 예정이다. OLED 리사이클 소재 품목 확대 및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2026년 실적은 매출액 503억원(+84.9%, YoY), 영업이익 96억원(+432.2%, YoY)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파른 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소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2025년 8월 27일 | 산업분석_Update

조선

Overweight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 조선업 재건

협력의 레버리지로 작동하는 MASGA 프로젝트

미국 현지 기준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미국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내 조선업 쇠퇴를 극복할 수단을 강구하는 모습이다. 한국이 미국에 조선소 설립을 검토 중이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조선소들에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언급이 가장 먼저 이뤄진 점에서 향후 미국의 요구 지점을 예상해볼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제시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에 대해서 이번 회담에서도 명시적인 사용처 또는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관건은 직접투자에 대한 명시적 요청 여부였으나 아직은 기존에 언급된 내용처럼 대출과 보증 등이 협력 펀드 대부분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캐피탈 콜 방식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자금 집행 요구가 세부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선박 구매 그리고 미국 현지 건조

한국의 배를 구매할 수밖에 없지만 일부는 미국에서 지어지면 좋겠다는 내용이 모두 발언의 중요 포인트다. 자국 조선업 밸류체인 부활이 가장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으며 동맹국 제조 밸류체인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시점에서 진행 중인 다수 협력 중 현지 조선소 인수를 통한 직접 건조와 현지 조선소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 건조 모두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미국이 기대하는 바를 일정 부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HD현대과 한국산업은행, 서버러스 캐피탈간의 한미 조선 산업 공동 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MOU, 삼성중공업과 비거 마린 그룹과 MRO를 위한 MOU 등 두 건의 협력이 추가로 이뤄졌다.

향후 미국 법률 개정 방향 확인 필요

공개회담 이후 이어진 언론 질의 응답 시간에서 조선업과 관련된 질문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 한국 조선업과 미국 제조업의 시너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은 한국산 선박과 제품을 선호하고 한국도 미국산 제품을 좋아하며 특히 미국산 석유의 존재 가치에 대해 강조하면서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부터 알래스카 LNG 합작법인으로 이어진 답변으로 마무리했다. 두 번째 MASGA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 조선업의 경우 위대함을 되찾는데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적어도 잠수함의 경우 현재 가장 훌륭한 기술력으로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소 제한되지만 해당 질문들을 통해 볼 때 특수선 분야 협력보다 상선 생산능력의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인다. 물론 현재 외국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제한한 다수 법률에 대해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채운샘 unsam1@hanafn.com

2025년 8월 27일 | 산업분석

운송

중국발 국제선 쇼티지 발생

Overweight

관심종목

*CP 2025년 8월 26일

대한항공(003490)
BUY | TP 30,000원 | CP 24,550원

진에어(272450)
BUY | TP 10,000원 | CP 8,540원

2025년 상반기 중국 국제선 수요는 2019년 이상으로 회복

2025년 상반기 중국발 국제선 여객량은 3,799만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고, 2019년 대비로도 5% 증가했다. 반면 공급 회복률은 2019년의 88%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 노선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항공사별로는 중국 항공사의 국제선 공급 회복률이 104%에 달하나, 외항사의 공급량은 2019년 대비 6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별: 미국 노선 회복률 27%

특히 중국발 국제선은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제선인 일본/한국/태국 노선의 회복률(2019년 대비)은 110%/93%/61%로 전반적으로 높고,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 국가(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폴)의 회복률 역시 110% 이상으로 높다. 유럽의 경우 이탈리아 158%, 영국 112%, 독일 78%, 프랑스 65%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미국 노선 회복률은 2019년 대비 27%로 가장 저조하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비즈니스/유학/여행 수요가 모두 급감했다. 중국 문화관광부/교육부에서는 미국을 위험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국내 항공사 향 반사수혜 기대

델타항공/아메리칸항공/유나이티드항공의 아시아태평양 노선 매출이 상반기에 각각 13%/24%/5% (YoY) 증가했는데, 이는 큰 부분 중국 노선에서 기인했다. 국내에서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상반기 중국 노선 매출액이 20%/62% (YoY) 증가했다. 중국 항공노선의 공급이 신속하게 늘어날 가능성 또한 제한적이다. 중국은 대부분의 국제선에 대해서 당국간 협의를 통한 노선 공급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유동적인 공급 조절이 힘든 지역이다. 특히 한국은 중국노선의 환승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고, 하반기 중국 관광객 무비자 효과도 감안하면 중국 노선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해서도 업사이드가 크다는 판단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탑라인 증가 효과가 가장 기대된다. 또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으로 중국 노선 운수권 중 일부가 LCC로 배분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6년 LCC 턴어라운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한다.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2025년 8월 27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통신서비스 9월 투자 전략

이젠 연말 호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장기 매수해야

Overweight

Top Pick 및 관심종목

*CP 2025년 8월 26일

SKT(017670)
BUY I TP 70,000원 I CP 55,100원

KT(030200)
BUY I TP 70,000원 I CP 55,100원

LGU+(032640)
BUY I TP 16,000원 I CP 15,220원

9월 투자 매력도 '보통'으로 하향, 연말 이후 내다본 장기 매수로 전환할 것을 추천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나 9월 단기 월간 투자 매력도는 보통으로 한단계 하향 조정한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이유는 2025년 2분기 실적을 고점으로 단기 이익 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이며, 올해 KT와 LGU+의 높은 주가 상승으로 인해 최근 2년간 주주이익환원 증가율 보다도 주가가 더 크게 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LGU+와 더불어 KT 역시 밸류업 관련 주가 반영 폭이 이미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 쉬어 가는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9월 핵심 이슈는 주파수 경매와 배당 분리 과세, SKT 점진적 악재 해소 예상

9월엔 통신 이슈가 그리 많지 않다. 1) 국내 및 미국 주파수 공급 로드맵 또는 경매 일정 발표, 2) SKT 과징금 수준 결정 및 발표, 3) 배당 분리 과세 적용 논의 및 결정, 4) LGU+ 명예 퇴직 인원 결정, 5) 통신사 3분기 프리뷰 개시 등이 아마도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보면 9월 통신사 주가가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사실상 배당 분리 과세 결정치가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호재가 되기 어렵고 통신장비주와는 달리 아직 미국/국내 주파수 로드 맵 또는 주파수 경매 이슈가 호재로 인식되긴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통신서비스 업종의 경우엔 11월 이후에나 국내 경매 이슈 및 2026년 밸류업 프로그램을 재료로 주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5G 요금제 출시/요금제 개편 논의, 장기 주주 환원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9~10월은 전형적인 배당 시즌이지만 최근 통신사 분기 배당 실시로 과거처럼 연말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 특별한 이슈 없이 통신주가 주주환원수익률 또는 배당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박스권 등락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12개월 Top Pick KT로 유지, 9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KT>LGU+

통신서비스 업종 12개월 Top Pick을 KT로 유지하는 것과는 다르게 단기 9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KT>LGU+로 9월엔 SKT를 월간 Top Pick으로 제시한다. KT와 LGU+의 배당 및 자사주 기대에 대한 주가 반영이 이미 충분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밸류업 정책이 단기간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며 실적 역시 2분기 피크 아웃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KT와 LGU+ 투자 전망이 밝지만 현 주가 수준에서 평가하면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악재 소멸 가능성이 존재하고 가격 메리트가 큰 SKT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다는 판단이다.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2025년 8월 27일 | Global Equity

캡콤(9697.JP)

게임스컴의 주인공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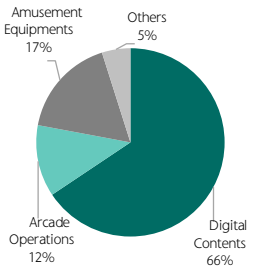
TP(컨센서스)	4,718 JPY
CP(8.25)	4,035 JPY

Key Data

국가	JAPAN
상장거래소	Tokyo
산업 분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주요 영업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www.capcom.co.jp
시가총액(십억USD)	2,150.7
시가총액(조원)	20.2
52주최고/최저(USD)	5015/2953.5
주요주주 지분율(%)	
캡콤	20.04
TSUJIMOTO CAPITAL CO LTD	8.21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0.2)	(0.4)	32.5
상대	(14.3)	(13.7)	17.0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169,604	169,604	190,949	209,574
영업이익	65,777	65,777	76,857	87,185
순이익	48,453	48,453	55,077	63,016
EPS(USD)	103.7	115.9	130.2	148.8
EPS(YOY, %)	18.7	11.7	12.4	14.3
ROE(%)	24.4	23.0	22.7	22.2
PER(배)	27.0	31.6	31.0	27.1
PBR(배)	6.0	6.8	6.4	5.4
배당률(%)	1.3	1.1	1.0	1.2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1Q26 Re: 몬스터헌터 와일즈의 부진을 멀티 IP로 상쇄

캡콤은 1분기 매출액 455억엔(+54%YoY), 영업이익 246억엔(+91%YoY, OPM 54.1%)을 기록했다. 디지털 콘텐츠(비디오 게임) 부문의 매출액은 298억엔(+39%YoY), 영업이익 200억엔(+70%YoY)으로 크게 성장했다. [스트리트 파이터 6]가 6월 5일 닌텐도 스위치 2 출시하며 누적 500만장을 돌파했고 [데빌 메이 크라이 5]가 애니메이션 방영으로 누적 1,000만장을 돌파한 영향이다. 또한 6월 [레지던트 이블 레퀴엠] 발표 이후 시리즈들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이번 분기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 총 275만장 판매됐다. 아쉬운 부분은 지난 2월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판매량 1,000만장을 돌파했던 [몬스터헌터 와일즈]의 흥행이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몬스터헌터 와일즈] 1분기 48만장 판매, 누적 1,058만장에 그쳤다. PC 버전 최적화, 콘텐츠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개발진은 겨울 배포될 무료 타이틀 업데이트 4에 최적화까지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개선에 따라 Life cycle 판매량 반등 가능할 전망이다.

다가오는 도쿄게임쇼를 기대

이번 게임스컴의 주인공은 단연 4관왕을 차지한 [레지던트 이블(바이오하자드) 레퀴엠]이었다. 캡콤은 작년 [몬스터헌터 와일즈]에 이어 올해도 기대작을 배출하며 IP 명가의 힘을 과시했다. 9월 도쿄게임쇼에서도 이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주년을 맞는 [레지던트(바이오하자드) 이블 레퀴엠]은 2026년 2월 27일 출시 예정이다. 시리즈의 9번째 메인 게임으로 지난 6월 SGF에서 출시일 확정 이후 마케팅 본격화되고 있다. 게임스컴에 맞춰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와 콜라보를 발표했다. 서브컬처 장르와의 콜라보를 통해 기존 팬덤 외 대중에게도 IP를 알리기 위함으로 해석한다. 9월 말 업데이트를 예상한다. 도쿄게임쇼에서는 총 8개의 라인업을 출전한다. 조이시티가 개발 중인 [바이오하자드 서바이벌 유닛]도 포함되었으며 텐센트 산하 스튜디오가 참여한 모바일 게임 [몬스터헌터 아웃랜더스]도 최초 공개 기대한다. 이외에도 [프라그마타], [귀무자: 검의 길], [몬스터헌터 스토리즈3] 등도 IP 본고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현대차 (005380.KS)	8/25	220,000	218,500	-0.68%	• 2Q25 Review 매출액 48.3조원(YoY +7.0%), 영업이익 3.6조원(YoY -16.0%) 기록 •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개방은 미국산 경쟁력 감안시 영향 제한적
크래프톤 (259960.KS)	8/25	328,500	337,500	2.74%	• 2Q25 Review 매출액 6,620억원(YoY -6.4%), 영업이익 2,461억원(YoY -25.9%) 기록 • 하반기 PUBG 콜라보 업데이트, UGC 확대되면서 성장 지속 전망
CJ제일제당 (097950.KS)	8/25	230,000	229,000	-0.43%	• 유럽의 중국산 라이신 반덤핑 관세 부과 기인해 라이신 판가 강보합세 흐름 유지 중 • 현 주가는 12개월 Fwd PER 8배로 역사적 하단에 위치해 밸류에이션 부담 제한적
현대백화점 (069960.KS)	8/25	73,000	75,100	2.88%	• 2Q25 Review 매출액 1.1조원(YoY +6.0%), 영업이익 869억원(YoY +103.0%) 기록 • 소비심리 반등, 정책적 지원 효과에 따른 내수 소비경기 회복 가시화
삼영 (241710.KS)	8/25	4,615	4,800	4.01%	• 신라인 생산 수율 7월 기준 약 85%까지 상승하며 생산 안정화 빠르게 진전 • 주조 전문업체 캐스코 인수, 주조·가공 일원화 통한 원가 경쟁력 및 시너지 기대
RFHIC (218410.KQ)	8/25	24,850	25,700	3.42%	• 25년 가을 미국 주파수 경매 이후 급격한 실적 호전 추세 진입 전망 • 미국의 중국산 부품 제재 강화로 25년 1분기부터 대 미국 수출 물량 증가
테스 (356860.KQ)	8/25	29,450	30,000	1.87%	• 삼성전자 평택 4공장(P4)과 SK하이닉스 M15X 신규 팹 매출 인식 연내 시작 • 24년 기준 SK하이닉스향 DRAM 장비 비중 기존 30%내외에서 47%로 확대
셀비온 (308430.KQ)	8/25	26,400	28,100	6.44%	• 조건부 허가 승인으로 인한 국내 RLT 첫 신약 출시와 기술이전 기대 유효 • 환자 수 누적에 따라 ORR 값 꾸준히 증가하며 우수한 탑라인 확인 기대
한중엔시에스 (107640.KQ)	8/25	31,450	32,450	3.18%	• 북미 포함 ESS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ESS향 매출비중 80%까지 확대를 목표 • 삼성SDI의 ESS솔루션 SBB1.5, SBB2.0 제품향 냉각시스템을 공동개발 및 단독 공급
티엘비 (356860.KQ)	8/25	27,000	28,450	5.37%	• 경쟁사, 고부가 제품 중심 포트폴리오 구축함에 따라 모듈 PCB 부문 수혜 기대 • 서버용 DDR5 수요 중심으로 메모리 기판 수요 호조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88%	+2.53%p	+28.09%	-1.33%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리가켐바이오 (141080.KQ)	8/11	149,600	148,400	-0.80%	• 파트너들의 임상개발 진전 및 자체 보유 파이프라인의 임상진입, 기술수출 기대 • 27년까지 신약 ADC 파이프라인에서 약 10개의 IND 신청 예정
삼성전자 (005930.KS)	8/4	68,900	70,300	2.03%	• 파운드리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고객사는 Tesla로 차세대 AI칩 관련 내용으로 추정 • 계약 규모를 떠나서 2나노 선단 공정에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점 유의미
HD현대중공업 (329180.KS)	8/4	476,500	468,000	-1.78%	• 2Q25 Review 매출액 4.1조원(YoY +6.8%), 영업이익 4,715억원(YoY +141.1%) 기록 • 가스선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상선 선종 Mix 개선 현재 진행 중
신한지주 (055550.KS)	7/28	71,200	65,000	-8.71%	• 2Q25 Review 비이자이익 1.2조원(YoY +13.7%), 당기순이익 1.5조원(YoY +8.7%) 기록 • 오버행 해소 및 CET 1 비율 추가 개선 등 우려 요인 완화 진행
파라다이스 (034230.KS)	7/21	19,050	20,850	9.45%	• 2Q25 Review 매출액 2,845억원(YoY +4.1%), 영업이익 429억원(YoY +33.9%) 기록 • 한중 관계 개선 및 마카오 서프라이즈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중국 드랍액 상승 기대
KCC (002380.KS)	7/14	357,000	374,500	4.90%	• 건설 경기 침체에도 주요 건자재 제품에서 독보적인 M/S를 기반으로 성장 중 • 과거 5년 평균 0.35배의 대표적인 저PBR 종목으로 기업가치 제고 기대
에이피알 (278470.KS)	7/14	166,300	225,500	35.60%	• 2Q25 Review 매출액 2,876억원(YoY +85.0%), 영업이익 592억원(YoY +111.0%) 기록 • 1Q25 미국 내 단일 브랜드 기준 K뷰티 매출 1위 달성, 마케팅 고도화로 해외 외형 성장 중
SK하이닉스 (000660.KS)	7/7	270,500	261,500	-3.33%	• 2Q25 Review 매출액 22.2조원(YoY +35.0%), 영업이익 9.2조원(YoY +68.0%) 기록 • 불확실한 수요와 업황 속에서도 HBM을 필두로 DRAM 경쟁력 입증 완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7/1	848,000	900,000	6.13%	• 2Q25 Review 매출액 6.2조원(YoY +168.7%), 영업이익 8,644억원(YoY +156.3%) 기록 • 하반기 K9 자주포 및 천무의 인도 지속 고려, 高수익성 유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
KT&G (033780.KS)	7/1	127,700	137,500	7.67%	• KT&G는 업종 내 가장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 중 • 해외 담배 매출 유의미한 성장세 지속
삼성E&A (028050.KS)	7/1	22,100	28,800	30.32%	• 2Q25 Review 매출액 2.2조원(YoY -18.9%), 영업이익 1,809억원(YoY -31.1%) 기록 • 하반기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6공장 등의 일부 계열사 물량 수주 기대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39%	-4.07%p	+38.40%	+8.99%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AI테크 TOP10 (485540.KS)	2025.07.22	12,290	12,805	4.19%	•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 핵심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AI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Magnificent7와 AI5 기업들에 집중하는 테마 ETF • 상용화의 영역 확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버린 AI, 신제품 교체 수요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 중국 수출 규제 완화와 트럼프 정부의 AI 육성 정책 모멘텀도 긍정적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6,395	26.12%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WON 미국빌리어네어 (489290.KS)	2025.02.03	13,065	13,820	5.78%	• 미국 최상위 억만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로 구성하는 패시브 ETF. 미국에 상장된 주요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 Tech,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필수소비재의 5개 업종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 브로드컴,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5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407830.KS)	2024.09.25	9,690	15,200	56.86%	• 대체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 • 전문화와 분업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기업들을 편입. 테슬라와 팔란티어, 샤오미, 넷플릭스, 아마존 등이 주요 구성 종목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HLD (미국 방산 기술 주식)	2025.06.16	58.83	61.93	5.27%	• 전통 방산기업들과 더불어 AI, 증강현실/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연료시스템 등 첨단 군사 기술에 중점을 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각국 정부들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수혜 전망. 미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수급 모멘텀 기대
URA (미국 우라늄 주식)	2025.06.16	38.07	39.49	3.73%	• 글로벌 우라늄 생산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치에 따라 편입하는 ETF • 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소모 증가, 탄소중립 압박,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원전 수요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 SMR(소형모듈 원자로)을 중심으로 원전 테마의 주가 모멘텀 기대 유효
QGRO (퀄리티 성장주)	2025.01.03	101.56	109.99	8.30%	• 성장성과 퀄리티를 함께 갖춘 중대형주로 구성된 ETF •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관심 증가. FOMC와 펀더멘털 퀄리티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며 상대 우위 보여줄 전망
PAVE (미국 인프라주)	2024.07.19	38.42	46.53	21.11%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리쇼어링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선호하는 정책 내용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24	8.25	8.26	8.27	8.28	8.29	8.30
	▪ 일본 6월 선행지수/동행지수 F (E --/--, 5월 106.1P/116.8P) ▪ 독일 8월 IFO 기업환경예상 (E --, 7월 88.6P) ▪ 미국 7월 신규주택매매 (E --, 6월 0.6%)	▪ 한국 8월 소비자기대지수 (E --, 7월 110.8P) ▪ 미국 7월 내구재주문 P (E --, 6월 -9.4%) ▪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E --, 7월 97.2P)		▪ 한국 8월 기준금리 (E 2.50%, 7월 2.50%) ▪ 유로존 8월 경기기대지수 (E --, 7월 95.8P)	▪ 한국 7월 광공업생산 (E --, 6월 1.6%) ▪ 미국 7월 개인소득/개인소비 (E 0.3%/0.3%, 6월 0.3%/0.3%) ▪ 미국 7월 PCE 디플레이터/근원 PCE 디플레이터 (E --/--, 6월 2.6%/2.8%)	
				▪ 한국은행 8월 금통위		
8.31	9.1	9.2	9.3	9.4	9.5	9.6
	▪ 한국 8월 수출/입 (E --/--, 7월 5.8%/0.7%) ▪ 일본 8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F (E 49.9P, 7월 48.9P) ▪ 유로존 8월 HCOB 제조업 PMI F (E 50.5P, 7월 49.8P)	▪ 한국 8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 7월 2.1%/2.0%) ▪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P (E --/--, 7월 2.0%/2.3%) ▪ 미국 8월 S&P Global 제조업 PMI F (E 53.3P, 7월 49.8P) ▪ 미국 8월 ISM 제조업지수 (E 48.0P, 7월 48.0P)	▪ 한국 2분기 GDP P (E --, 1분기 0.5%) ▪ 일본 8월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F (E 52.7P, 7월 53.6P) ▪ 유로존 8월 HCOB 서비스업 PMI F (E 50.7P, 7월 51.0P) ▪ 미국 7월 JOLTs 구인건수 (E --, 6월 7,437K)	▪ 유로존 7월 소매판매 (E --, 6월 0.3%) ▪ 미국 8월 ADP 취업자수 변동 (E --, 7월 104K) ▪ 미국 8월 ISM 서비스업 지수 (E 50.0P, 7월 50.1P)	▪ 미국 8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 (E 83K, 7월 73K) ▪ 미국 8월 실업률 (E 4.3%, 7월 4.2%) ▪ 미국 8월 시간당 평균 임금 (E 0.3%, 7월 0.3%)	
			▪ 미국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	▪ 미 연준 9월 베이지북 공개	▪ 미국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